



Pepeliaev Group LLC
Building 1, 39 3rd
Tverskaya-Yamskaya Street,
Moscow, 125047, Russia

E: info@pgplaw.ru
T: +7 (495) 767 00 07
F: +7 (495) 765 00 07
www.pgplaw.ru

«Pepeliaev Group»의 극동 사무소의 파트너인 Natalia Prisekina와 «Pepeliaev Group»의 극동 사무소의 변호사인 Ekaterina Samusenko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출판사 «JURIS Legal Information»의 «Force Majeure and Hardship in the Asia-Pacific Region»이란 책의 영어 장을 공동으로 집필하였다. «JURIS Legal Information»은 국제법과 미국 법을 전문으로 하는 풀 서비스 법률 출판사로서 저명한 전문가들이 작성한 포괄적인 참고 자료를 출판한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가장 큰 16 개 관할권의 저자와 러시아 극동 지역의 유일한 참가자인 «Pepeliaev Group»의 극동 지부의 동료들이 초청되었다. «Force Majeure and Hardship in the Asia-Pacific Region»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가장 중요한 경제 대표자들 사이의 이해의 관점에서 이 주제를 드러내며 그러한지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고 각 국가에서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는지, 상대방에 대한 법적 결과는 무엇이며, 통지 요건 및 사용 가능한 구제책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상세 가이드에는 불가항력 사건이나 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취해야 할 중요한 단계도 설명되어 있다. 러시아에 관한 부분에서 «Pepeliaev Group»의 극동 지부의 동료들은 러시아 법률에서 불가항력 개념 및 불가항력 개념의 사용과 관련하여 현재의 광범위한 법적 문제를 다루고 불가항력 사건에 대한 사법 관행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과 관련된 상황의 중요하고 중대한 변화를 통해 국제 수준에서 그들의 전문성을 증명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얻는다.

출판사의 홈페이지에서 "«Force Majeure and Hardship in the Asia-Pacific Region»"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사전 주문을 할 수 있다. 또한 «JURIS Legal Information»은 여러 국가에서 도서의 가상 프레젠테이션을 주최 할 계획이 있다.